

# 국제원자재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

- 지정학적 불안으로 공급 불확실성 지속 전망 -

## 목 차

I. 원유

II. 곡물

III. 금속

(첨부) 원자재 선물옵션 비상업포지션 차트

## 지정학적 불안으로 공급 불확실성 지속 전망

김희진 | 책임연구원(3705-6225)

오정석 | 전문위원(3705-6231)

### ■ [국제원자재가격지수] 1월 에너지, 농산물, 비철금속 부문 등 대부분 상승(전월말 대비)

- 에너지 비중이 높은 S&P GSCI(S&P Goldman Sachs Commodity Index) 지수는 11.2% 상승. (하위 부문별로 에너지 +17.0%, 농산물 +4.4%, 산업금속 +2.5%, 귀금속 -2.0%, 축산물 +5.9% 등). CRB(Commodity Research Bureau Index) 지수는 9.8% 상승
  - 美 천연가스(+30.7%), 브렌트(+17.3%), WTI(+17.2%), 휘발유(+14.6%), 두바이(+14.4%) 등 에너지 전품목 상승. 대두(+12.2%), 옥수수(+5.5%)와 주석(+10.7%), 알루미늄-니켈(+7.6%)도 큰 폭 상승

### ■ [전망]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공급망 차질에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이 가세하며 공급측면에서의 불확실성으로 당분간 원자재가격 강세가 지속될 전망

- 유가 : 글로벌 원유수요 회복세가 양호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에 따른 공급 불확실성도 높아 당분간 강세기조를 유지할 전망. 타이트한 수급 여건 속에서 對리 제재 가능성, 산유국 여유생산능력 감소 등으로 일각에서는 \$100 돌파 전망 제기
- 곡물價 : 강세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남미 수확,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라 변동성 확대 예상. 북미지역의 건조한 기후, 브라질-아르헨티나 가뭄, 건조한 글로벌 수요 등 강세요인들이 건재
- 비철금속價 :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수요 증가율이 다소 둔화될 것이나, 전력 등 에너지 부족에 따른 생산비용 상승으로 제련소 공급능력은 제한될 것으로 보여 주요 비철금속 가격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주요 투자은행들의 원자재 가격 전망(1.31일 기준)

	1월(a) <sup>1)</sup>	'22.1Q(f) <sup>2)</sup>	2Q(f) <sup>2)</sup>	3Q(f) <sup>2)</sup>	4Q(f) <sup>2)</sup>
WTI	82.98	76 (-)	72 (+2)	72 (+3)	72 (+5)
옥수수(\$/부셸)	6.094	5.95 (+0.55)	6.05 (+0.85)	5.65 (+0.45)	5.50 (+0.50)
소맥(\$/부셸)	7.723	7.80 (+0.01)	7.71 (+0.20)	7.27 (+0.05)	7.01 (+0.48)
구리(\$/톤)	9,754.5	9,500 (-)	9,250 (-100)	9,296 (-104)	9,500 (-)
알루미늄(\$/톤)	3,002.5	2,700 (-)	2,500 (-17)	2,500 (-)	2,500 (+25)

주: 1) 1월 평균값(average). 2) 최근 3개월 주요 기관 전망치의 중간값(median), ( )는 전월말 전망치 대비 등락

자료: Bloomberg

〈표 1〉 주요 원자재 가격 동향<sup>1)</sup>

		'21년 평균	'22년 1월 평균	12/31	1/31	전월말 대비(%)	'20년말 대비(%)	연중최고 <sup>2)</sup>	연중최저 <sup>2)</sup>
Index	CRB	209.22	244.61	232.37	255.12	+9.8	+52.0	255.12('22.1/31)	166.69(1/4)
	S&P GSCI	517.32	596.98	561.18	623.78	+11.2	+52.3	628.37('22.1/31)	406.51(1/4)
	에너지	229.53	276.48	252.32	295.33	+17.0	+82.4	297.63('22.1/28)	161.05(1/4)
	농산물	414.77	455.07	445.22	464.78	+4.4	+26.3	474.12(5/12)	365.68(1/4)
	산업금속	456.60	514.64	499.17	511.68	+2.5	+31.3	543.24(10/18)	379.26(2/2)
Oil & Gas	WTI(\$/배럴)	68.08	82.98	75.21	88.15	+17.2	+81.7	88.84('22.1/28)	47.18(1/4)
	두바이(\$/배럴)	69.01	83.12	76.48	87.53	+14.4	+74.3	88.00('22.1/31)	49.53(1/5)
	브렌트(\$/배럴)	70.95	85.57	77.78	91.21	+17.3	+76.1	91.7('22.1/28)	50.56(1/4)
	휘발유(\$/배럴)	89.13	100.90	93.60	107.28	+14.6	+81.4	108.35('22.1/28)	57.20(1/5)
	천연가스(\$/mBtu)	3.723	4.255	3.730	4.874	+30.7	+88.8	7.346('22.1/27)	2.414(1/22)
Agriculture	소맥(\$/부셸)	7.020	7.723	7.708	7.613	-1.2	+18.9	8.6325(11/24)	5.9325(3/31)
	옥수수(\$/부셸)	5.819	6.094	5.933	6.260	+5.5	+29.3	7.75(5/7)	4.795(1/4)
	대두(\$/부셸)	13.747	14.001	13.288	14.905	+12.2	+13.3	16.7725(5/12)	11.7125(11/9)
	쌀(\$/cwt)	13.34	14.60	14.63	15.06	+2.9	+21.0	15.23('22.1/27)	12.21(6/17)
	원당(\$/파운드)	17.88	18.45	18.88	18.22	-3.5	+15.6	20.69(11/18)	14.67(3/31)
Metals	금(\$/온스)	1,799.0	1,816.6	1,829.2	1,797.2	-1.8	-5.3	1,959.35(1/6)	1,676.89(3/8)
	구리(\$/톤)	9,293.5	9,754.5	9,720.5	9,506	-2.2	+22.4	10,747.5(5/10)	7,705(1/28)
	알루미늄(\$/톤)	2,485.9	3,002.5	2,807.5	3,021	+7.6	+52.6	3,229(10/18)	1,945(1/19)
	니켈(\$/톤)	18,466.9	22,076.5	20,757	22,328	+7.6	+34.4	24,435('22.1/20)	15,665(3/9)
	아연(\$/톤)	3,007.3	3,574.5	3,534	3,586	+1.5	+30.4	3,944(10/15)	2,546.5(2/2)
	납(\$/톤)	2,189.4	2,320.4	2,304	2,244.5	-2.6	+12.6	2,452.5(10/25)	1,908(3/18)
	주석(\$/톤)	31,172.4	41,338.5	38,860	43,023	+10.7	+111.7	44,200('22.1/21)	20,380(1/4)
친환경에너지 관련 품목									
Solar	폴리실리콘(\$/kg)	24.57	30.92	29.16	32.15	+10.3	+204.2	35.81(10/20)	10.57(1/4)
Batteries	코발트(\$/톤)	51,577.1	70,833.3	70,500	71,000	+0.7	+120.6	71,000('22.1/25)	34,000(1/4)
Renewable	에탄올(\$/갤런)	2.11	2.16	2.137	2.16	+1.1	+50.7	2.48(6/1)	1.338(1/4)
CO <sup>2</sup>	탄소배출권(€/톤)	53.63	84.29	79.77	88.89	+10.8	+172.8	90.75(12/8)	31.28(1/18)

주 : 1) WTI 및 휘발유, 천연가스는 NYMEX 근월물 가격, 브렌트유는 ICE 근월물 가격, 두바이유는 현물가격, 농산물은 CBOT, ICE 근월물 가격, 금속, 코발트는 LME 근월물 가격(금은 현물가격), 폴리실리콘은 PV Insights의 All Grades 주간 평균 현물가격, 탄소배출권은 ICE 근월물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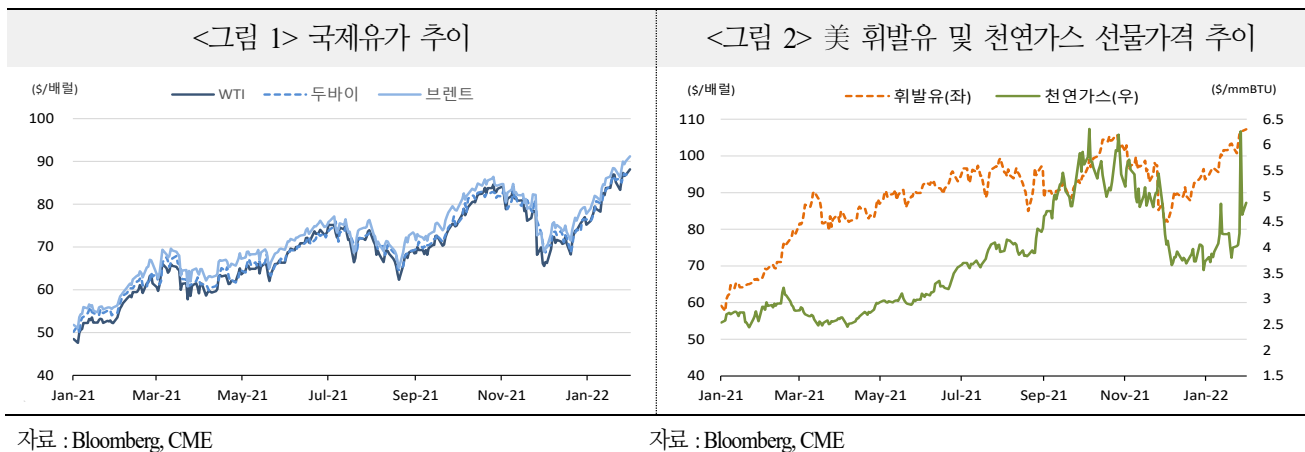
2) 연중 최고 및 최저는 '21년 1월 4일부터 '22년 1월 31일까지 장중가격 기준. 적색은 전월중 기준 기록 경신을 의미.

자료 : Bloomberg

## I. 원유

### □ [동향] 1월 국제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상승폭 확대

- WTI 선물가격, 1.31일 \$88.15로 전월말 대비 +17.2%
  - 러시아 등 OPEC+ 산유국들이 생산쿼터에 미달하여 생산하고 있고 추가적인 여유 생산능력도 제한적인 상황. 美 재고감소 등 타이트한 수급 여건 하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긴장 고조에 따른 공급차질 우려로 2개월 연속 두자릿수 상승률 시현
  - 美 휘발유도 유가 강세에 힘입어 급등(\$107.28, +14.6%). 美 천연가스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러시아산 수출 제재 가능성 등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30.7%) 기록



### □ [주요 변수] 지정학적 리스크, 수급 여건, 여유생산능력, 美 통화정책 가속화 등

〈표 2〉 강세/약세 요인별 구분

강세 요인	약세 요인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 수요 견조세, 여유생산능력 감소	美 통화긴축 가속화 달러강세

-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에 따른 공급 불확실성 심화 가능성
  - 서방국이 러시아 원유(세계 생산의 11%) 및 천연가스(세계 2위, EU 가스 수입의 46%) 수출에 대한 제재조치 단행 시 글로벌 공급은 심각한 혼란에 빠질 가능성
  - 러시아의 무력침공 실행 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작년 4분기와 같은 초강세가 예상되며, 국제유가는 대체수요 등으로 \$100을 상회하는 오버슈팅 가능성
- 오미크론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원유수요는 개선세

-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잡았으나 증상 및 치명률이 델타 변이에 비해 높지 않아 원유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
  - IEA에 따르면 '21년 4분기 세계수요는 일일 9,900만배럴로 증가. 사우디아라코는 현재 시점에서 수요가 팬데믹 이전 수준에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평가
- OECD 재고는 '21년 12월 26.94억배럴로 전년동기대비 -10.9%, 과거 5년 평균 대비 8.3% 낮은 수준(EIA)→ 증산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더 빠르게 증가한 점을 반영

○ 산유국의 증산으로 여유생산능력 감소 예상

- OPEC+의 감산완화(→증산) 지속으로 여유생산능력(생산능력—실제 생산량)은 '20년말 일일 650만배럴에서 '22년 중 200만배럴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Morgan Stanley)
  - 美 원유생산은 1.28일 일일 1,150만배럴로 전년동기대비 +5.5%(평년대비 +4.1%). OPEC 생산량도 '21년 12월 기준 일일 2,800만배럴로 8개월 연속 월평균 36만배럴 증가

○ 美 통화정책 가속화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소지

- 연준은 1월 FOMC에서 3월 금리인상 및 양적긴축 조기시행 시사 등 긴축기조 강화. 위험회피심리로 WTI 선물·옵션의 비상업 순매수포지션은 1.25일 4.44만계약으로 지난해 10월 중순 대비 -12.2%

□ [전망] 원유에 대한 글로벌 수요 회복세가 양호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에 따른 공급 불확실성도 높아 당분간 국제유가는 강세기조를 유지할 전망

- 타이트한 수급 상황에서 서방의 對러 제재 가능성, 산유국의 여유생산능력 감소 등으로 국제유가는 최근 급등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OPEC+의 단계적 증산(매월 일일 +40만배럴)에도 불구하고 실제 증산량은 이에 미달하는 가운데 러시아 원유수출에 대한 제재 실행 시 글로벌 공급 감소 우려 증폭
- 재고 감소, OPEC의 생산여력 및 신규투자 동반 감소 등을 반영해 '22년 국제유가 전망치를 큰 폭 상향하는 등 주요 IB를 중심으로 연내 \$100 돌파 전망 제기
  - 하반기 중 \$90 후반(WTI)~\$100(브렌트)로 '14년 3Q(WTI \$97, 브렌트 \$103) 재연 가능성(MS)

〈표 3〉 주요 투자은행들의 국제유가 전망(\$/배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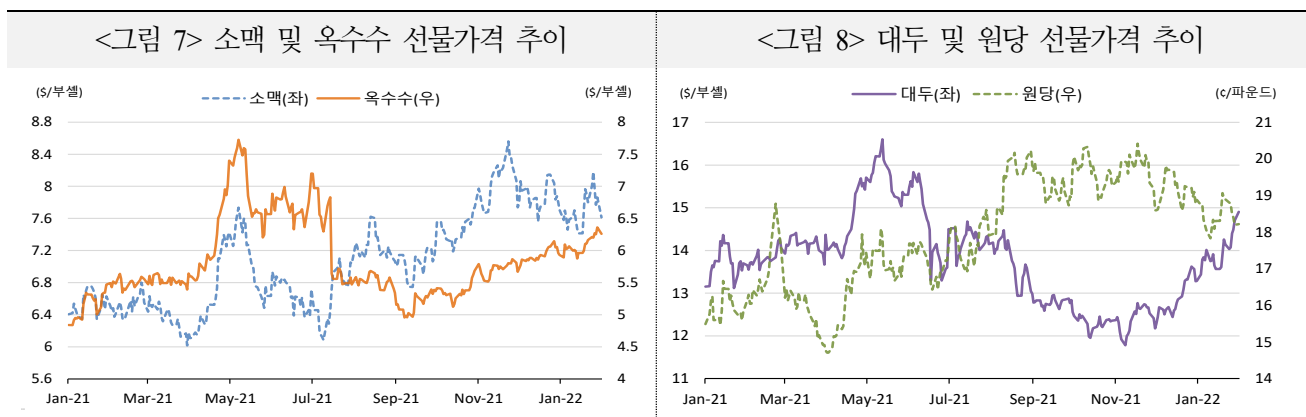
	1월(a) <sup>1)</sup>	'22.1Q(f) <sup>2)</sup>	2Q(f) <sup>2)</sup>	3Q(f) <sup>2)</sup>	4Q(f) <sup>2)</sup>
WTI	82.98	76 (-)	72 (+2)	72 (+3)	72 (+5)
브렌트	85.57	79 (-)	75 (+2)	74 (+3)	74 (+4)

주: 1) 1월 평균값 2) 최근 3개월 주요 기관 전망치의 중간값(median), ( )는 전월말 전망치 대비 등락. 자료: Bloomberg

## II. 곡물

### □ [동향] 1월 주요 곡물가격은 전반적으로 강세 지속

- 1.31일 CBOT 옥수수 선물가격은 \$6.26(전월말 대비 +5.5%)로 7개월래 최고치
  - 남미 농업기상여건에 대한 우려 지속, 글로벌 수요 견조 등이 강세를 지지. 美 연준의 정책 정상화 가속화에 따른 달러강세의 영향은 제한적
  - 대두도 남미 가뭄과 생산전망 하향조정 등으로 상승(전월말 대비 +12.2%). 소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긴장으로 상승했으나 월후반 차익매물로 하락 전환(-1.2%)



자료: Bloomberg, CBOT

자료: Bloomberg, CBOT

### □ [주요 변수] 러시아-우크라이나 긴장, 남미 기상여건, 미국 가뭄, 달러강세 등

- 주요 농업생산국인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무력충돌 시 공급 불확실성 고조 불가피
  - ▲서방의 對러시아 고강도 경제제재 ▲러시아의 곡물 무기화 ▲우크라이나 생산활동 차질 등으로 소맥 등 곡물 공급에 심각한 차질 발생 가능성
  - \* 러시아는 소맥 수출 세계 1위. 우크라이나는 소맥 수출 5위, 옥수수 3~4위
  - 러시아의 소맥수출은 생산부진으로 작년 7월~금년 1월 중 전년동기 대비 21% 감소한 상황. 전쟁 현실화로 수출이 추가로 감소할 경우 세계수급에 악영향
- 남미 옥수수 및 대두 생산지역의 기상여건 악화로 추가 생산전망 하향 가능성 상존
  - 1월 중 단비가 내리기는 했으나 고온건조한 기후가 해소되지 않았으며, 라니냐도 지속되고 있어 농업기상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
  - \* 엘니뇨/라니냐 측정 지역인 nino 3.4 지역의 평년 대비 해수면 온도는 1.26일 기준 -0.7°C로 전월보다 높아졌으나 여전히 라니냐 기준(-0.5°C 이하)을 하회

- 1월 중 브라질의 '21/22년 옥수수 및 대두 생산 전망은 전월보다 3.6%와 1.6% 하향조정(Conab). 아르헨티나는 대두의 우수 및 양호 비율이 12월보다 57%p 하락하는 등 작황이 크게 악화(Buenos Aires Grain Exchange)

• Conab는 브라질의 연간 대두 생산량이 전년도에 비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나 시장에서는 가뭄의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시각이 제기

○ 미국 겨울밀 작황도 가뭄으로 부진

- 미국내 1위 생산지역인 캔자스주의 경우 77%가 표토수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네브라스카주와 콜로라도주도 73%와 82%로 가뭄이 심각
- 1월말 기준 캔자스주 겨울밀의 31%는 품질이 저조 또는 매우 저조(poor or very poor)한 상황이며 여타 지역에서도 품질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어 향후 생산량에 부정적 영향 우려

○ 미 달러화 추가 강세 가능성

- 달러화는 美 연준의 연내 금리인상 3회 이상 및 조기 양적긴축(QT) 가능성, 美 실질금리 상승 등으로 한 때 '20년 7월 이후 최고치 기록
- 美 통화긴축 가속화 등 달러강세를 주도하는 동력이 건재한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불안 마저 가세하고 있어 강세기조가 이어질 전망

□ [전망] 전반적인 강세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남미 수확,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라 변동성 확대 예상. 강달러가 상단을 제한하겠지만 추세를 바꾸지는 못할 전망

- 미국 건조한 기후(겨울밀),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가뭄(옥수수, 대두), 건조한 글로벌 수요 등 주요 곡물의 강세를 견인하는 요인들이 여전히 건재
- 2월부터 브라질의 옥수수 수확이 시작되므로 관련 동향에 따라 가격변동성이 확대될 소지, 러-우크라 사태의 향방도 곡물가격 진폭을 확대시키는 요인

〈표 4〉 주요 투자은행들의 곡물 가격 전망(\$/부셸)

	1월(a) <sup>1)</sup>	'22.1Q(f) <sup>2)</sup>	2Q(f) <sup>2)</sup>	3Q(f) <sup>2)</sup>	4Q(f) <sup>2)</sup>
옥수수	6.094	5.95 (+0.55)	6.05 (+0.85)	5.65 (+0.45)	5.50 (+0.50)
소맥	7.723	7.80 (+0.01)	7.71 (+0.20)	7.27 (+0.05)	7.01 (+0.48)
대두	14.001	13.00 (+1.56)	13.50 (+2.29)	12.50 (+1.51)	12.00 (+1.24)

주: 1) 1월 평균값 2) 최근 3개월 주요 기관 전망치의 중간값(median), ( )는 전월말 전망치 대비 등락. 자료: Bloomberg



### III. 금속

#### □ [동향] 1월 비철금속 가격은 품목별 혼조세

- LME 구리 선물가격, 1.31일 톤당 \$9,506로 전월말 대비 -2.2%
  - 견조한 전기차 및 인프라 수요, 중국 금리인하에 따른 유동성 확대 기대 등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긴축기조 강화에 따른 위험회피심리 확대로 하락 전환. 알루미늄은 중국 정부의 제련소 탄소배출량 감축 계획 발표 등으로 큰 폭 상승(+7.6%)
  - 니켈은 역사적으로 낮은 재고, 인도네시아 수출세 부과 검토, 미얀마 광산 생산중단 등으로 상승세 지속(+7.6%). 주석은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공급망 및 물류 차질 지속, 인도네시아의 수출 제한에 따른 재고 감소 등으로 최고가 경신(+10.7%)
- 금 가격은 달러강세, 연준 금리인상 예고 등으로 하락(\$1,797.2, 전월말 대비 -1.8%)



자료: Bloomberg, LME

자료: Bloomberg, LME

#### □ [주요 변수] 미국 통화정책, 주요국 경기 동향, 에너지 가격 상승, 품목별 이슈 등

- 고물가로 美 연준의 조기 금리인상 추진 예상. 달러강세 심화 가능성
  - 12월 미국 CPI는 7.0%로 1982년 6월 이후 최고치 기록. 이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해 연준은 1.25일 FOMC에서 조만간 금리인상을 예고. 강도높은 긴축정책에 대한 우려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
  - 향후 미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경계감과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달러화 상승압력이 강화될 가능성
- 주요 선진국 PMI, 시장 예상보다 부진(IHS Markit)
  - 미국의 1월 제조업 PMI는 55.0(예상치 56.7)로 15개월래 최저, 서비스업 PMI는 50.9(예상치 55.0)로 18개월래 최저. 유로존 1월 종합 PMI(←전반적인 경제활력)는 서비스업 부진 등으로 '20년 2월 이후 최저치인 52.4 기록



- 구리 : 페루, 도로 재봉쇄 우려. 칠레, 가뭄으로 생산감소 예상
    - 페루 Las Bambas 광산(세계 생산의 2%) 주변을 점령한 시위대들이 정부의 보조금 협상안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15일 내로 도로봉쇄 재개여부를 결정할 예정
    - 칠레 광산업체 Antofagasta社は 금년 구리 생산량이 가뭄과 용수 부족 등으로 66만~69만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 '21년 생산량은 72.1만톤(-1.7%, yoy)에 그침
  - 니켈 : 인도네시아 니켈 수출 감소 가능성. 재고 39주 연속 감소
    - 인도네시아 정부는 배터리용 니켈 제품 생산 촉진을 위해 저품위 제품인 페로니켈, 니켈선철(NPI) 수출에 누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 공급부족폭 확대 가능성
    - LME 재고는 1.28일 9.2만톤(전주대비 -1.9%)으로 지난해 4월말부터 39주 연속 감소
  - 알루미늄 : 지난해보다 공급부족 확대 전망
    - 신규 프로젝트 개시 및 공장 재가동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세계 수요, 유럽의 제련소 감축 및 중국의 느린 증산 등으로 금년 220만톤의 공급부족 예상(Wood Mackenzie)
- [전망]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수요증가율이 둔화될 것이나, 전력부족 등으로 제련소 공급능력은 제한될 것으로 보여 비철금속 가격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전세계적인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정·제련비용이 증가하면서 주요 금속 생산업체인 Nyrstar, Glencore社 등이 유럽 제련소의 감산을 추진하여 공급과 재고가 타이트한 상황
    - 작년에는 중국의 전력(알루미늄 제조비용의 35%) 부족이 이슈. 올해는 유럽에 주목
  - 올해 글로벌 친환경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 초과수요가 이어질 전망
    - 세계 구리 소비증가율은 전기차 등 친환경 인프라 수요에 힘입어 '21년 1.3%에서 '22년 1.8%(중국은 +1.0%, yoy)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Fi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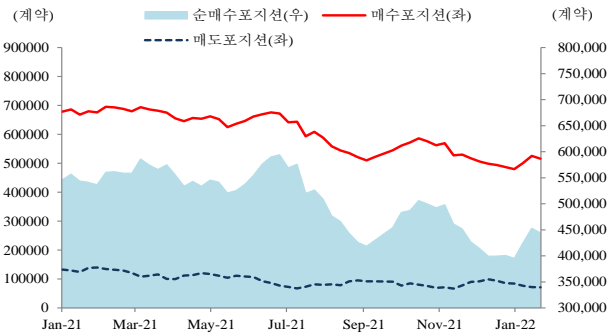
〈표 5〉 주요 투자은행들의 주요 기초금속 가격 전망(\$/톤)

	1월(a) <sup>1)</sup>	'22.1Q(f) <sup>2)</sup>	2Q(f) <sup>2)</sup>	3Q(f) <sup>2)</sup>	4Q(f) <sup>2)</sup>
구리	9,754.5	9,500 (-)	9,250 (-100)	9,296 (-104)	9,500 (-)
알루미늄	3,002.5	2,700 (-)	2,500 (-17)	2,500 (-)	2,500 (+25)
니켈	22,076.5	20,267 (+767)	20,000 (+875)	19,250 (+257)	19,500 (+565)
아연	3,574.5	3,300 (+158)	3,200 (+183)	3,000 (+74)	3,075 (+225)

주: 1) 1월 평균값 2) 최근 3개월 주요 기관 전망치의 중간값(median), (-)는 전월말 전망치 대비 등락.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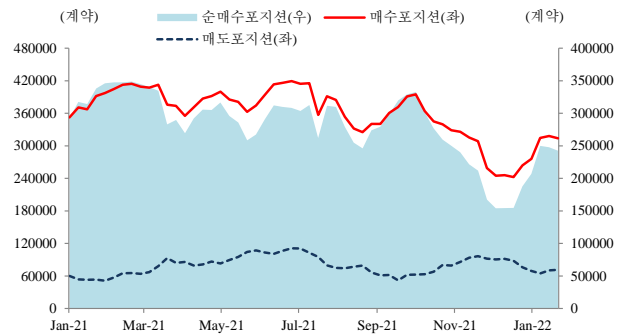
(첨부) 주요 원자재 선물옵션 비상업(Non-commercial) 포지션 Charts

〈NYMEX WTI 선물옵션 비상업 포지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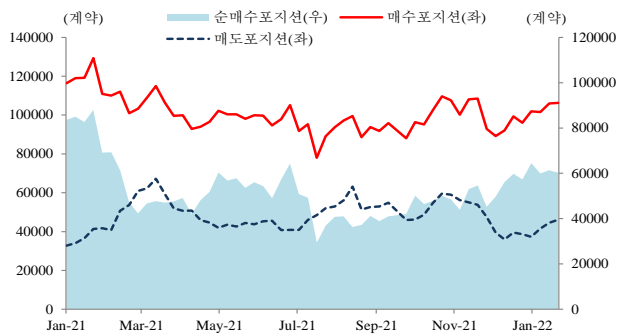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CFTC

〈ICE 브렌트유 선물옵션 비상업 포지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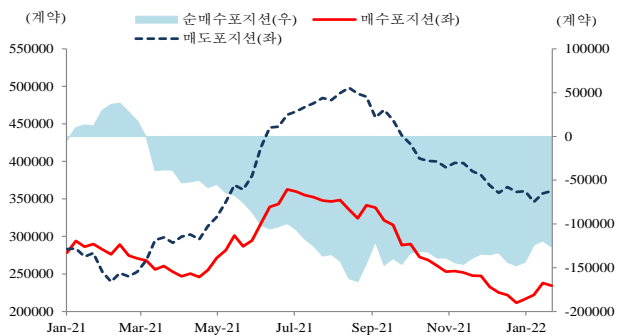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CFTC

〈NYMEX 휘발유 선물옵션 비상업 포지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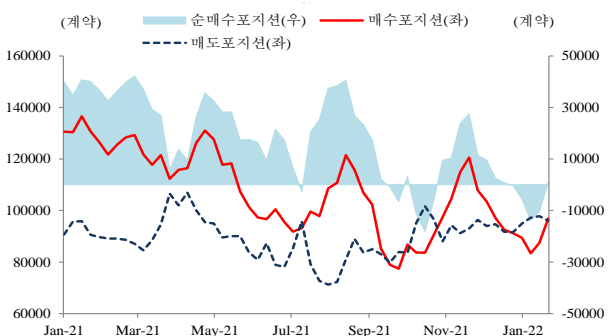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CFTC

〈NYMEX 천연가스 선물옵션 비상업 포지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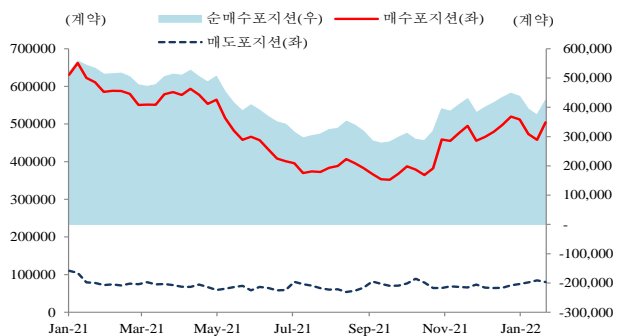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CFTC

〈CBOT 소맥 선물옵션 비상업 포지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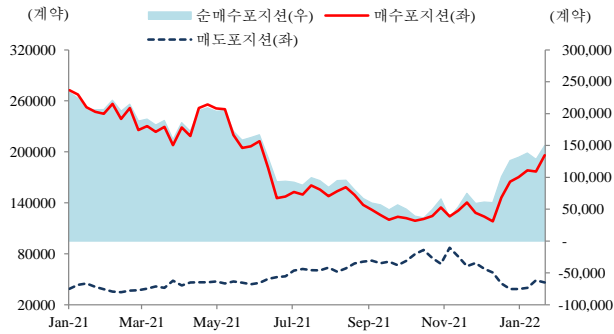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CFTC

〈CBOT 옥수수 선물옵션 비상업 포지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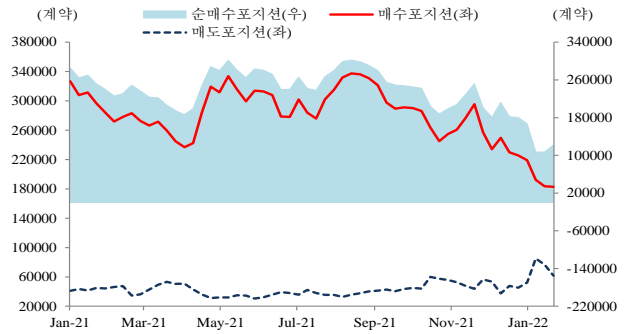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CFTC

〈CBOT 대두 선물옵션 비상업 포지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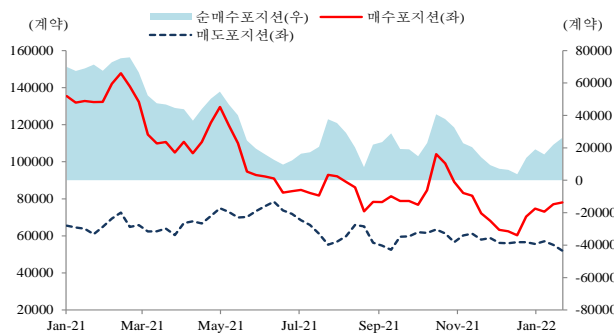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CFTC

〈ICE 원당 선물옵션 비상업 포지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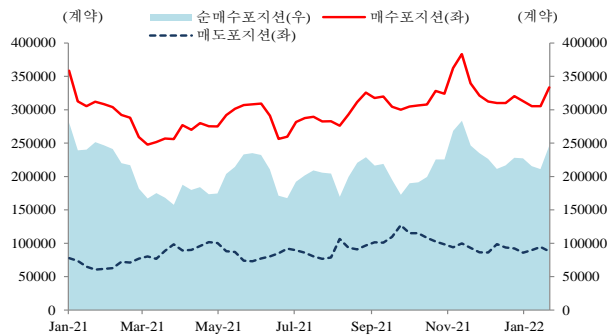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CFTC

〈COMEX 구리 선물옵션 비상업 포지션 추이〉



자료: Bloomberg, CFTC

〈COMEX 금 선물옵션 비상업 포지션 추이〉



자료: Bloomberg, CFTC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보고서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국제금융센터는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25 혹은 kimhj@kcif.or.kr, 홈페이지: www.kcif.or.kr